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The Lunenburg Letter”

by

Alexander Campbell

Millennial Harbinger

1837

루넨버그 서신¹⁾

번역: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서문

루넨버그 서신(Lunenburg Letter)은 링컨 신학대학원이 교재로 쓰기 위해서 간편한 형태로 편집해 출판한 문서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서신과 알렉산더 캠벨의 해설과 설명이 1837년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에 처음 실린 이후 환원운동권에 속했거나 속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루넨버그에 거주하는 “양심적인 자매”에게 보낸 캠벨의 회신에서 비롯된 쟁점들의 토론은 이 정기 간행물의 후속 호에서 계속되었다. 캠벨과 다른 저자들, 특히 크리스티아노스(Christianos)와 토마스 헨리(Thomas M. Henley)의 기사들이 1837년부터 1840년까지 다음과 같이 『새천년시대의 선구자』지에 실렸다. 참고하기를 바란다.

1837년호: 411-414, 506-508, 561-567, 577-578쪽

1838년호: 348-349, 426-427, 520-521

1839년호: 43-45, 124-128, 168-179, 213-216, 292-294, 395-401, 475-476, 529-531, 547쪽

1840년호: 21-22, 106-109, 125-128, 162-165, 275-277쪽

루넨버그에 거주하는 자매로 하여금 『새천년시대의 선구자』지의 편집자에게 편지를 쓰게 한 캠벨의 글은 ‘영국에 보내는 서신들, 제1호’(Letters to England-No. 1)로 제목이 붙여진 기사(記事)였다. 이 기사는 1837년 6월호에 게재되었다.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진술의 앞 단락 전체와 해당 진술이 있는 단락을 제공한다. 이의가 제기된 진술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대문자(신명 순명조제)로 표기한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귀하의 문의를 접하면서, 본인이 서둘러 관찰한 바로는, 우리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그들이 합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단체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회, 교육협회, 문서선교회, 성서공회, 금주회, 반노예 제연맹을 결성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선한 일이라면, 그것들은 교회 자체의 고유한 성격으로 교회에 속하며,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리스도인(a Christian)으로서 자신이 가진 수단과 기회가 있는 한 이러한 목표들을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리스도교 기관은 세상의 모든 불경, 옳지 못함, 정의롭지 못함, 억압 그리고 잔혹함을 없애고, 인간 존재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자비롭고 인도적이며 자선적인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그들의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는 그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우리 땅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는 훈련을 받아 사회에서 유용하고, 안전하며, 명예로운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리고 때로는 신앙서적, 신문, 잡지 그리고 팸플릿들이 세상에 널리 배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며, 특히 모든 알코올성 음료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러해야 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금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튀르키예인(무슬림), 유대교인, 무신론자들과 같은 주님의 적들

1) Alexander Campbell, "Any Christians Among Protestant Parties," and "The Lunenburg Letter," *Millennial Harbinger*, 1837, reprinted by the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동일 자료가 있는 인터넷주소: https://digitalcommons.discipleshistory.org/cgi/viewcontent.cgi?article=1012&context=all_foundationaldocuments

과 비밀리에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연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자들이 누구든지 간에,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노예이든지, 고용인이든지 간에 그들을 약탈하고 억압하는 모든 책략에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종들에게 정당하고 동등하게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남편으로부터 부인을, 모정(母情)과 부정(父情)의 품에서 유아들을 판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오래고, 존중할만하고, 성스런 결혼제도를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나 그 밖의 다른 인위적이고 상황적인 구별이나 차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을 자신들의 동료 피조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취급해야 하며, 신앙으로 교육받고, 영생을 위해 훈련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신성하게 받드는 명제들이요, 교리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모든 그리스도인들(all Christians)**과 이 문제들에 협력하고,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이라면,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형제교회들에 소속되어 있는 아니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개신교 교단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FOR WE FIND IN ALL PROTESTANT PARTIES CHRISTIANS). 그들과 우리의 상대적인 지식과 기회들에 비추어 볼 때, 그들도 우리 자신들만큼이나 모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무리와 연합단체(confederacy)를 형성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대의를 유지하기 위해 사탄의 백성들로부터 후원금(tax)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협의체들(associations)이 천국 시민권에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언적으로 이들 결속된 연합단체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따라 공동체(a community)를 형성하는 한, 다시 말해, 그들이 불경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 혹은 신조가 없거나 모든 것을 신조로 삼는 이방인들과 단 하나의 일치점(coincidence) 때문에, 그 점이 무엇이든 간에, 교제를 유지하는 한, 우리는 그들과 연합할 수 없고, 그러한 단일 것발아래서 항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조직들(계획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한 제도(기관)는 단지 인위적인 제도(기관)들에 굴복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271-273쪽. 볼드체는 캠벨의 것임. 신명순명조체와 영문 대문자체는 루넨버그에 거주하는 자매가 지적한 것임).

1970년 3월

본문

개신교 교단들 속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루넨버그, 1837년 7월 8일

“친애하는 캠벨 형제님, 저는 오늘 『선구자』지를 읽다가 형제님께서 개신교 교단들을 그리스도인(as Christian)으로 인정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형제님은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친애하는 형제님, 저의 놀라움과 옳은 일을 행하려는 열망이 저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에 형제님께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여성의 캐릭터에 관한 형제님의 평가로 볼 때, 알고자 하는 저의 미약한 질문들에 형제님께서 기꺼이 응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친절히 알려주시겠습니까? 형제님의 어떤 행위가 형제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까? 어떤 때에 바울은 그에게 명명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어떤 때에 고넬료는 그에게 명명된 그리스도를 가졌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이름을 통해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Christ) 혹은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이름이 오로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로 장사된 자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양심적인 자매에게 드리는 대답으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에 개신교 교단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가톨릭교인들 사이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없고, 유대교인들, 튀르키예인들(무슬림), 이교도들 사이에도 전혀 없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 말고 혹은 예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고 있고, 지키려고 힘쓰는 우리와 같은 자들 말고는 이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없다. 그러므로 수세기 동안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없었다.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관한 약속들도 실패했고, 지옥의 문들이 그의 교회 위에 굳림하였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교파들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가? 나는 대답한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에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의 분량대로 범사에 순종하는 모든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혹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 혹은 믿음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 혹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나 불완전한 사람 모두를 인정한다. 전자는 실제로 후자를 함축한다. 바울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하라”(고후 3:11)¹⁾고 명령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온전케 됨을 기원한다고 말한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인 너희를 위해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²⁾ 바울은 다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고전 2:6)라고 말한다. 또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전 14:20)고 권한다. 이 밖에도 다른 많은 곳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하거나 함축하고 있다. 의지와 기질과 행동에 온전함이 있는가하면, 온전한 상태와 온전한 성품도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성품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도 어떤 면에서 불완전할 수 있다. 바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강하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주 예수께서는 착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단지 30배의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다고 인정하신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지적(知的)이란 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그는 자신의 외식함(Pharisaism)이나 무례함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경솔한 판단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가진 더 뛰어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한 가지 의무도,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수세례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나 인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³⁾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유아시기에 자신의 지식과 동의 없이 약식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로 간주한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⁴⁾고 인정하셨지만, 외국인이요, 이스라엘의 복지와 관련이 없는 외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⁵⁾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⁶⁾ 말씀하셨다.

만일에 내가 침례 받은 자 혹은 사도시대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침수세례를 받은 자 보다 그리스도교 성경말씀에 더 지적이고, 생각이 더 영적이며, 주님께 더 헌신적인 유아세례를 받은 자를 발견한다면, 나는 가장 사랑하는 그에게 내 마음의 우선권을 주는 데 잠시도 주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다르게 행동한다면, 본인은 골수 교파주의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래도 나는 “누군가가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말고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것이다. 나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1) 역자주: 고린도후서 3장 11절은 13장 11절의 잘못된 인쇄로 생각된다.

2) 역자주: 고린도후서 13장 9절.

3) 강조는 역자의 것임.

4) 역자 주: 요한복음 4:22.

5) 역자주: 마가복음 7장 24-30절; 마태복음 15장 22-28절.

6) 역자주: 마태복음 8장 10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하신 말씀이다.

대답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내가 한 가지 계명에 대한 순종을 보편적인 순종이나 심지어 일반적인 순종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교파적 침례교도나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내가 가르치는 침수 이론이나 실천에서 나와 일치하는 사람보다 더 영적인 마인드로 메시아의 요구사항들을 더 전반적으로 따르는 것을 본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후자보다는 전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진심어린 인정과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느낀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찾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이것은 몇 가지 것들에 대한 정확성에 있지 않고, 알려진 모든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헌신에 있다.

나와 더불어, 잘못된 이해 때문에 범하는 실수들과 편견 때문에 범하는 과오들이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극과 극이 먼 것처럼 멀다. 천사라 할지라도 계명의 의미를 오해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가 그것을 이해하는 의미대로 그것에 순종할 것이다. 존 번얀(John Bunyan)과 존 뉴튼(John Newton)은 매우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세례와 다른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매우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순종하고자 했고, 그들의 지식이 미치는 범위까지 모든 일에서 주께 순종하였다.

타락으로 인하든 그렇지 않든 실수들은 있다. 온 세상이 정죄해야 할 고의적인 오류들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동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수들도 있다. 사도들은 주께서 요한에 관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⁷⁾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을 오해하였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⁸⁾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거짓되게 말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브라함도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분의 말씀을 왜곡하였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실수를 저질렀다. 실수들은 그것들이 명령된 것을 아는 수단을 고의로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경우에만 과실이 있고 부패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무지는 그것이 자발적일 때 언제나 범죄이고, 비자발적일 때는 무죄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긍정적인 제도들을 무시하고 또 그것들을 인위적인 권위의 다른 어떤 것들로 대치한 모든 사람들이 고의로 그렇게 하거나, 혹은 고의가 아니라면, 기록된 것에 자발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나는 그들의 실수들이 그들의 모든 공언들을 비그리스도교화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없고 감히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 무지한 것은 언제나 불행이며, 매우 일반적으로는 범죄이라는 것은 참으로 진실하다. 하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지식과 경건에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권위에 지배당하여, 자기가 태어나고 교육받은 곳, 바로 자기 굴뚝의 먼지와 연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모든 사람들은 많은 궁핍과 많은 혼란을 겪지만, 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서 자유롭다.

“본질적인 것들”을 설교하는 자들이나 “비본질적인 것들”을 설교하는 자들 모두가 자주 오류를 범한다. 본질주의자는 정신(the heart)을 폄하하고, 비본질주의자는 제도를 경멸하는지 모른다. 후자는 천국의 제도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전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정신적 성향(bias)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에게 서신을 보낸 분은 우리가 사람이 제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미미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제도의 권위와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부류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시각과 청각 중 어느 것도, 또는 둘 다 삶에 본질적이지 않다고 단언함으로써, 시각과 청각 중 어느 것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7) 역자주: 요한복음 21장 22절.

8) 역자주: 요한복음 8장 51절.

생각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지상에 있는 모든 금을 준다 해도 내 눈 중 하나를 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눈 하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고백내용에 따른(on a profession of the faith)⁹⁾ 침수세례를, 비록 그것이 성화와 안위에 대단히 본질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본질로 만들 이유(occasion)는 없다. 나의 오른쪽 손과 오른쪽 눈은 나의 소용과 행복에 대단히 본질적이다. 그러나 나의 생명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그것들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내가 침수세례의 참되고 성경적인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으로 수용함이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침수세례를 받은 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추론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온전한 시력을 가진 자 이외는 살아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만큼이나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나는 제안된 모든 질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는다. 그 질문들이 모두 지향하는 한 가지 요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요점에만 나는 이들 소견들을 집중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어떤 의식(ordinance)을 경멸하거나 고의로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일리가 없다고 주저 없이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만일에 그가 자신의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싶어 하면서, 어떤 제도의 의미를 오해하면, 그가 반드시 영명을 받는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친다면, 나는 나 자신의 신념들에 반하는 죄를 짓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장에 결론을 내리자면, 극복할 수 없는 무지나 본의 아닌 실수로 계명을 정말 소홀히 하거나 여기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계명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혹은 그러한 지식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단과 기회들이 미치는 전체 범위에까지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태만히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등록될 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추론한다. 또 나는 그렇게 추론하면서 신구약성경의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알렉산더 캠벨(A. C.)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9월호에 실린 루넨버그 서신의 질의에 대한 기사에서 특정 문장들에 대해 서신을 주신 지적이고 존경받는 두 서너 분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우리는 개신교 교파들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의 견해로서 설명했다. 견해는 실제로 우리가 요청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표명해 왔던 것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 사함에 관한 우리의 첫 번째 부록에서 분명히 공언되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점을 양보했다거나 내가 말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의 특정 부분을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한다. 언급된 기사에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의무도, 심지어 그리스도인 침수세례와 그 밖의 것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나 인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신앙고백내용에 따른 침수세례를, 비록 그것이 성화와 안위에 대단히 본질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본질로 만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두 문장이 해당 기사의 이의를 제기할 만한 관절과 골수 부분이란 것을 우리는 독자들에게 다시

9) 역자 주: 침례가 죄 사함을 위한 것임을 베푸는 자나 받는 자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또 그 같은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다는 John Thomas와 그의 추종자들의 주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

한 번 말한다.

질의자의 질문들에 답을 만들어 감에 있어 질문자의 알려진 기질과 견해에 많은 것이 좌우된다. 이번 사례의 경우가 그랬다. 우리는 이 설명들을 요구한 질문들의 제기자가 그리스도인 침례라는 주제에 관해서 오히려 극단주의자라는 것을 파악했다. 침수세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 혹은 심지어 침수세례를 받은 자라도 물에 장사되기 전에 침례의 진실한 의도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조금이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허용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우리는 이것을 그녀의 서신에서 알아냈고, 물론 우리가 전에 했던 만큼의 대담한 답변,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대담한 답변을 했지만, 그 주제에 대해 우리가 이전에 표명했던 견해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투고자들에 대한 나의 높은 관심이 그 문장들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통해 우리의 견해를 추가 설명토록 요구한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에 침수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 주어졌지,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는 루넨버그의 자매는 물론 그들과도 기꺼이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침수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공용어의 모든 다른 단어처럼 이 용어 역시 바울이 때때로 성도와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단어들, 그 의미의 일부로, 사용하듯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에게서 내적인(이면적) 유대인과 외적인(표면적) 유대인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내적인 그리스도인과 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없겠는가? 사실 외적인 사람이 항상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고자들 중 한 사람은 '내적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내적이고 외적인 사람이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동의한다.

같은 사도가 할례에 대해 이치를 따지듯이, 우리도 침례에 대해 이치를 따져 볼 것이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¹⁰⁾라고 박식한 바울은 말한다. 즉 우리가 그 사도를 이해하듯이, 그것은 외적인 육신의 것이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¹¹⁾ 침례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외적인 육신의 것만이 아니요, 또한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외적인 것은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내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의 칭찬을 위한 것이다.

일부 형제들이 견지하는 다른 견해의 좋은 점은 이것이다. 단순히, 고의가 아닌, 외적인 침례를 오해한(잘못 받은) 사람이 내적인 침례를 누릴 수 있는가? 외적인 침례를 고의로 혹은 부주의하여 왜곡하는 사람은 내적인 침례를 누릴 수 없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동의한다. 그러나 단순한 오해(실수)로, 왜곡할 뜻이 없이, 외적인 침례를 오해한 자가, 침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따라 침례를 받았다면,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내적인 침례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정확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나의 견해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대답한다. 이것에서 벗어난 것을 나는 지지(용인)하지 않는다.

이 견해에 대한 나의 이유는 다양하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 가운데 두 가지는 단지 시간과 공간뿐이며, 이번에 제시하고자 한다. 일곱 가지 어려운 이유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들이다.

10) 역자주: 로마서 2장 28절.

11) 역자주: 로마서 2장 29절.

이 일곱 가지 가운데 두 가지는, 반대로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관한 약속들이 실패했다. 그렇다면 지난 삼백년 동안 지상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사탄의 왕국의 신민들로 간주됐어야 했다는 추론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 형제들 중 누구도 침례를 단지 외적인 것으로만 간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몸이 물속에 외적으로 잠길 때 동시에 정신과 마음이 그리스도와 합하는 내적 잠김이 있다고 믿는다. 게다가 그들은 전자가 후자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단지 후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자 없이 있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의미에서는 전자 없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언해야 할뿐이다.

여전히 나의 견해는 나의 형제들에게 어떤 행동 규칙이 아니며, 원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 왕국에서의 그들의 헌법적 시민권과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의 성화와 위안에 필수적인 것으로 믿음과 회개와 침례를 거듭 가르치는 동안,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사적인 만족을 위한 것 말고는, 이 세대의 모든 차이들에 관한 우리의 입장들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 복종하는 그가 확실히 더 안전하다. 그리고 그는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거룩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의식들을¹²⁾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의 칭찬만을 누린다.

불만이 제기된 글에 인용된 성구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특성(character)에 적용되는 것이지, 투고자들 가운데 한 분이 깊이 생각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상태(state)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잘못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전반적인 설명들이 이 점에 관해 만족스럽기를 희망한다.

알렉산더 캠벨(A. C.)

오하이오 강, 1837년 9월 28일.

개신교 교단들 속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이 사무실에서 받은 수많은 서신들로 보건대, 루넨버그 자매에게 회신한 나의 글이 우리의 형제들에게는 약간의 고통을, 교파에 속한 우리의 친구들에게는 약간의 기쁨을 주었다. 교파 주의자들은 조롱조로 우리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들만큼이나 안전하군요.” 또 “당신들은 이제 모든 요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 이를테면, 침수세례가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이지 않다고 인정하고 우리에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일부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해왔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무력화시켰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관한 주제 전반에 대한 시대의 무지와 오류와 무관심에 맞서 싸웠던 상당한 무기를 그들에게서 해제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의견주의(Opinionism)에 대한 나의 견해는 나 자신의 의견을 교리화하거나 확립시키려는 노력을 나에게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언급된 의견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수백 통의 서신들을 게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그러한 서신을 출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서신을 게재할 지면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면만 충분하다면 이 나라에 “캠벨주의자

12) 역자 주: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를 뜻함.

들”(Campbellites)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역사회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투고자들이 나의 의견이 근거 없는 거짓임을 보여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캠벨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위해 내게 글을 썼던 것 같다.

그러므로 나는 의견 자체를 교리화 할 의사가 없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할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않지만, 나는 다음의 것들을 시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에 대해서 나 자신을 방어해야 할 의무.

둘째, 교파주의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 의견을 방어해야 할 의무.

셋째,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을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해야 할 의무.

1. 그러므로 내가 신속히 서둘러 밝히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일찍이 주장했던 어떤 것도 양보했거나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표명된 의견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내가 항상 공언해 온 것이란 점이다.¹³⁾

(1) 먼저, 만일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이미 연합되어 있다고 가르쳤다면, 우리가 사도적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관해 작성한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2) 그리고 둘째로,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허약한 친교집단 이외에 주께서 더 이상의 백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상상했다면, 성령께서 바벨론에 머무는 성도들에게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¹⁴⁾고 하신 말씀을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인용했으며, 변절한 기독교계에 적용했는가?

(3) 그러나 아직도 의심이 가는 사람은 1825년 4월호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¹⁵⁾지에 실린 다음의 글을 읽기 바란다. “나는 교파들이 하나의 거대한 군대로 연합하는 것을 볼 생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와 율법에 위협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주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셨다. 이성과 자비심이 오직 그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만을 그들로부터 불러낼 것이다.” 등등. 이것은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의 현재의 의견과 매우 유사하다. 제2판, 베다니(Bethany), 85쪽.

(4)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해서 언어구사의 순수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느 분도 아직까지 여러분의 원칙들에 따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분열되는지, 어떻게 각 파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지를 종종 보여 주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자들의 가시적인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가시적인 분열을 옹호하는 한, 우리는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다.” 1827년 3월호, 제4권.

(5) 우리의 투고자들이 보내준 “그리스도인 연합”에 관한 많은 기사들과 서신들은 우리의 지지와 함께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 그들 중 하나에서 몇 구절을 인용한다. “나는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몸의 참 지체들이며,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1826년 10월호, 제4권, 53쪽.

13) 그것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위한 침례만큼 오랜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만큼 오래된 것이다. 그 정기간행물의 창간호와 두 번째 호를 읽으시오.

14) 역자주: 계시록 18장 4절.

15) 역자주: 『그리스도인 침례자』는 알렉산더 캠벨이 1823년부터 1830년 5월까지 7년간 발행한 잡지이다. 1830년 1월부터 1866년까지는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가 캠벨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6) 1826년 8월 스펜서 클락(Spencer Clack)에게 보낸 서신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분열이라는 악에 관해 당신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나는 모든 분열과 현존하는 모든 교파적 감정을 진심으로 개탄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헌법적 근거에서 모든 분열들을 치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더 멀리 갈 사람이 이 대륙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도보로 백 마일을 가서 그 분을 만나 뵙고, 그분에게 나의 잘못들을 고백하겠다.” 제5권, 15쪽.

(7) 오웬(Owen)씨와 토론하기¹⁶⁾ 위해서 떠나기 전 저녁에, 1829년 4월 6일, 제6권, 239쪽, 그 위기를 암시하면서 나는 말한다. “나는 모든 교파교단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여망과 기도와 소망을 내가 책임지고(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있어서 기쁘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리스도인 침례자」지에 언급하고 있다.¹⁷⁾

(8) 이 주제에 관한 「새천년시대의 선구자」지의 견해들은 ‘회복된 기독교’(Christianity Restored)란 제하의 글, 또는 우리가 그것을 명명한 대로 ‘원칙들에 연결된 견해’(A Connected View of the Principles) 등,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를 형성할 기초에 관한 글 속에 농축되어 있다. (그것의 표지 제목을 보시오!!)

(9) 그 책에는 그리스도인 연합의 기초에 관한 긴 기사가 있는데,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교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101쪽부터 128쪽까지 이 기사 전체를 언급한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동체를 일컬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어느 날 한 곳으로 모을 중축(中軸)이라고 말한다(102쪽). 그 기사에서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지며 묻는다(121쪽). “교파들이 정말 그치겠는가? 한 주님아래, 한 믿음 안에, 한 침수세례 안에서 모든 제자들이 연합될 때가 정말 오겠는가? 분열들이 정말 치유되겠는가? 지상의 성도들 사이에서 분쟁이 정말 그치겠는가?”

(10) 그러나 마지막으로 죄 사함을 위한 침례에 관한 첫 부록에서 우리는 유아세례자들의 그리스도교의 허약함으로부터 “이 구원을 고의로 태만히 하는 자들,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서도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거절하는 자들 말고는 아무도 - 정말 이런 사람들 말고는 다른 어떤 사람도 - 배제시키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한다. “그들이 복음에 대한 그들 자신의 정의에 따른 구원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품는 것만큼, 우리는 그들에 대해 거의 희망을 품지 못한다.” 제1호, 「부록」, 제1판, 53쪽.

이와 같은 열 가지 논쟁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관성이 없거나 입장을 바꿨다며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 가장 명백히 부정확하게 말해왔던 것은 아닌지를, 나는 지금 솔직히 말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열 가지 증거들을 어렵지 않게 백 가지로 늘려 말할 수 있다.

2. 이제 우리는 이 의견을 교파주의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변호해 볼 것이다.

(1) 그것은 침례를 받지 않은 어떤 특정인에게 사죄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전혀 주지 않기

16) 역자 주: 1829년 4월에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알렉산더 캠벨과 무신론자 로버트 오웬(Robert Owen) 사이에 그리스도교 변증, 사회 체계, 회의론 체계 등에 관한 토론(Debate on the Evidences of Christianity) 대회가 있었다. 캠벨의 초기 생애를 다룬 영화(한글 자막)에 이 토론대회가 실감나게 재현되었다: [http://kccs.info/Wrestling with God_Video of the Early Life of Alexander Campbell.mp4\(1280x720\)](http://kccs.info/Wrestling with God_Video of the Early Life of Alexander Campbell.mp4(1280x720))

17) 관심 있는 독자는, 내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지에 실린 그리스도인 연합에 관한 기사들, 특히 한 「독립 침례자」(Independent Baptist)지에 보낸 나의 답신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위로에 비해 그들에게 너무 큰 기쁨을 준다.

이 의견과 관련해서, 침수세례를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 곧 이 의견을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과 그것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 의견에 대해 아무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거나 악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잠깐의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의견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주제를 숙고해왔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해서 고집스럽게 또는 고의적으로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천분의 일이다. 그러므로 그 의견의 바로 그 정의에 있어서, 그는 그것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갖지 못한다. 그의 기쁨은 참으로 그를 반대하는 강한 추정적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감정들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올곧은 마음 즉 그 의견에서 짐작되는 적어도 그런 마음일리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그 주제에 대해 그들 자신들과 어떤 토론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만, 또 아무런 검토나 성향 없이 침례를 받았다고 자기 자신들을 생각해왔던 사람들만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도, 일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뿌림세례를 받거나 부음세례를 받거나 침수세례를 받은 사람이 혹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따라 뿌림세례를 받거나 부음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다른 모든 것들이 동등하다 할지라도)이 처음부터 믿고, 그런 후 자기 자신의 신앙고백에 따라 침수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을 것이라는 것과 동일한 확신일 수가 없다. 전자의 경우, 우리는 기뻐해야 인간의 오류성의 추론과 의견을 가질 뿐이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우리는 우리 구세주와 재판장의 확실하고 무오한 약속을 갖고 있다. 신자들의 침수세례를 싫어하거나 편견 때문에 자신의 유아 때 혹은 성인 때 부음세례나 뿌림세례를 받은 자신을 주께서 받으실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위해 기뻐하는 자는 표명된 의견에서 고려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즐거움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뜻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호감 가는 견해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2) 그러나 전술한 의견이 무지와 오류와 무관심에 맞서는 논쟁으로부터 우리를 그만두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지식의 최대치까지 행동반경을 넓히고 있고, 또 기회들을 따라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그가 태만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 의견의 바로 그 정의 때문에 자신의 침례가 사도적이고 신성하다는 것을 단지 의심하거나,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당화되지 못하고, 자기 정죄를 받는다.

(3) 신약성경의 모든 진보된 지식이나 경험 없이도 유대인들이나 구약의 족장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제도의 최상의 가치와 우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만큼, 교파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죄 사함을 위한 침례의 가치와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기질, 상태, 그리고 성품 말고도 그리스도인의 특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판단으로는, 믿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지적으로 장사되고 부활한 사람만큼 칭의나 죄 사함에 관한 완전한 확신을 갖는 사람은 지상에 없다. 그러므로 침수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현재의 구원을 누리는데 만큼, 다른 모든 것들이 동등하다 할지라도, 침수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의 구원을 결단코 온전히 즐길 수 없다.

(4) 다시 말하지만, 모든 교파가 동의하듯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침수세례를 받은 사람

은 진실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교계의 단지 일부만이 침례로서 어떤 다른 행동의 가능성을 인정할 뿐이다. 신성한 제도를 존중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협력을 위한 길을 개방하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의무라는 것이 쉽게 드러날 것이다. 게다가, 침수세례는 예수의 보편적인 왕국에서 헌법상의 시민권을 부여한다. 반면, 우리의 반대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재판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침례”가 단지 그 왕국의 일부 지역들에서만 시민권을 수여한다. 침례에 관한 한, 동방교회(the Greek), 가톨릭교회(the Roman), 성공회(the English), 루터교회(the Lutheran), 개혁교회(the Calvinian), 아르미니우스주의교회(the Arminian), 그리고 침례교(the Baptist) 공동체들이 침수세례를 받은 자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리스도교계의 오직 일부만이 뿌림세례 받은 자들과 부음세례 받은 자들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견은 어떤 의미에서도 침례의 가치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5)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를 단지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질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뜻을 알고고도 하지 아니하고, 행하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개인을 우리가 주창한 의견의 위도와 경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묻는다. 어디에서 그 같은 의견의 공언이 그리스도교 제도 속에 있는 침례의 가치에 대해, 혹은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을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할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명령한 저명한 선지자의 요구들에 지체 없이 복종하는 것에 대해 지지 혹은 모독하기 위한 논쟁에서 우리를 무장해제하는가?

3.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의견을 전달해야할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한다.

(1) 우리는 한 자매로부터 “모든 개신교 교단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정기간행물의 현재 권에서 인용한 말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 말에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거나 강력히 반대하는 것들이 포함된 질문 목록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어떤 대답을 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질문들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나는 전술한 말에서 그녀가 느꼈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 어려움에 관심을 쏟았다.

(2) 그러나 우리는 이 자매가 가진 어려움들보다도 여전히 더 시급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 같은 의견을 표명해야했다. 우리의 형제들 일부는 교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구원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외국인들 즉 완전히 적그리스도적이고 부패한 집단으로 싸잡아서 매도하는 일에 지나치게 중독되어 있었다. 이제 주님께서 바벨론에 대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이 호기심 많은 자매의 어깨 너머로 그들을 질책해야한다는 강박감을 느꼈다. 아주 열렬한 이들 형제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대중의 모든 사적이고 사회적인 덕행들을 알보면서, 우리가 침례를 구세주로 혹은 천국에 가는 여권으로 만든다는 교계의 비난에 빌미를 제공하였다(gave countenance to the popular clamor).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 자신의 것만큼 강력하고 신랄한 말로 그들에게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예의 바른 중도(中道)로 끌어내고자 했다.

사례는 이렇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고, 그의 친밀한 친절과 동정심 및 형편이 허락하는 한 활동적인 자선에 한계를 모르며, 그리스도인 집회에 결단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주어진 모든 의무를 철저히 순종함으로 자신의 내적 경건과 헌신이 입증되며, 자신의 가족이 주

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고, 성경을 자신의 항구적인 동반자로 삼는 사람을 내가 볼 때, 나는 말한다. 내가 이방인과 세리들 사이에서 그 같은 부류의 사람을 볼 때, 왜냐하면, 그는 결코 묻지 않았고, 그가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항상 당연시했기 때문에, 그 조차도 이 모든 공적, 사적 미덕이 크게 결여된 사람한테서, 그 사람의 주된 혹은 유일한 추천이 그가 침수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복음에 대한 성경적 이론을 갖고 있다는 사람한테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 같은 사람에게 아침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싶다. 그리고 나는 어느 교파에서든 가장 뛰어난 교수가 예수님의 모든 계명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폄하하도록 이끌지 않겠지만, 바울이 자신이 만들지 아니한 한 체계¹⁸⁾를 자랑한 유대인 형제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침수세례를 받은¹⁹⁾ 나의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형제여, 그의 무할례나 무침례가 그 사람에게에는 침례로 간주되지 않겠습니까? 또 문자적이고 참된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왕²⁰⁾의 율례들을 범하거나 소홀히 하는 당신을 그가²¹⁾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3) 우리는 세 번째 이유를 갖고 있다. 우리는 파당을 지어 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고 언제나 비난을 받아왔다. 또 한편 우리는 진실로 현재 우리가 서있는 기반을 잡아야 한다는 압력을 언제나 받아왔다. 나는 지난 일 이년간 이 인상을 지우려고 애썼다. 내가 아는 것은 우리 형제 백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깃새를 채는 정도보다 더 많이 은밀하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더욱 서슴없이 개신교를 옹호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진술하려는 것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개신교 대중에게 우리가 그들로부터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못마땅하다는 것과 그들이 일컫는 이 거대한 “분열”의 원인이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왔다.

이제 이러한 설명을 염두에 두고, 그가 주장한 양보의 의미를 검토해 보자. 그리고 내가 먼저 묻고자 한다. 무엇이 우리를 유인하여 이 위기의 때에 양보하게 할 수 있었는가? 아니 내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양보를 그토록 강하게 반복하게 할 수 있었는가?

아무도 우리의 반대자들이 억지로 우리에게 양보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들이므로, 우리는 논쟁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모두가 그 “양보”가 주재님께 나선 것이었고, 완벽한 자유의지에 따른 제안이었다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입지를 부러워한다거나 그들의 기반을 차지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순수하고 본래적인 복음 제도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단지 자신들과 같은 새로운 교파로 간주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교계에서 가장 훌륭한 개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믿음, 회개, 죄 사함을 위한 침례, 그로 인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양자됨과 천상의 부르심의 모든 약속들은 교파의 제단과 지푸라기 즉 애도를 위한 의자, 불안한 자석, 그리고 다른 모든 근대식 개종 장치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그것이 이론적일뿐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은 개신교 교단들의 가장 분별력 있고 경건한 부분들에서 그것이 전례가 없는 진보들을 이론 사실에서 드러나 있다. 이 땅이나 조국들에 있는 어떤 기존의 교단도 지금 신약성경교회를 주창하는 운동만큼 매우 꾸준하고 빠르게 발전해 온 적이 없다. 그 운동은 이 거대한 연방에 속한 거의 모든 주와 영토에서, 심지

18) 역자 주: 할례

19) 역자 주: 자랑하는

20) 역자 주: 하나님

21) 역자 주: 무침례자가

어 외국들에서조차도, 수년 내에 성공적으로 주장되어져왔다.

일천 번의 실험들이 그것을 입증하듯, 모든 반대 체제들에 대한, 보편적인 승리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충분한 수의 지적이며 일관된 선포자들이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한다. 많은 위선자들의 어리석음, 위선, 사악함 때문에, 또 일부 선량한 형제들의 무분별함과 경솔함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이 매우 만족스럽게 증명하듯이, 해마다 번영을 거듭하며 견뎌내고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고 배타적인 교파나 교단을 만들거나 이끌려고 하는가? 우리에게서 그럴 수단이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왜 어떤 것, 심지어 어떤 다른 교단 속에 있는 구원의 희미한 가능성조차, 만약 그러한 목적이고 이기적인 동기(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양보해야 하는가? 우리 견해의 신선한 이 모든 사실들과 논리적 근거들을 가지고 나는 묻는다. 그와 같은 양보가, 즉 그와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자유의사에 따른 제시가, 우리가 종교계에 새로운 교파를 만드는 영광을 추구한다는 비방에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럽고 반박이 불가한 논박이 아닌가? 그러고서 만약, 우리의 반대자들 중 일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새롭고 예상치 못했던 양보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생각에) 이기적이거나 당파적인 견해와 감정에 근거한 그들의 비난과 질책을 침묵시켜야 했으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인 그와 같은 전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우리 동료 사역자들의 일부는 접근책(approaches)이 질책(reproaches)보다 더 구주의 정신과 스타일에 더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으므로 화해적이고 온유하며, 자비로운 태도가 가장 품위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것임을 우리는 온전히 만족스럽게 입증해왔다. 많은 개신교 교사들과 그들의 공동체들이 이전보다 우리에게 훨씬 호의적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와 연합할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성경 하나에만 이르게 되는 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건너올 것이 확실하다. 침례교인들과 유아 세례자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점점 더 나날이 느끼고 있고, 우리의 견해들은 대중의 마음에 해마다 점점 더 확실히 주입되고 있다.

그러나 결론을 말하자면, 버지니아 주 동부에 사는 우리의 형제들은 적어도 이 시기에 우리 의견에 대해 그토록 강하게 표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술한 의견에 대해, 여타 다른 지역에서 한통의 서신을 받는 반면, 그 지방으로부터는 많은 서신들을 받고 있다. 그들 중 일부가 심하고 부당하게 교파들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남용한 그들을 묵인하고, 돕고, 부추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일부 다른 지역들에서 몇몇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보편적 성결보다 침수세례에 더 중점을 두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루넨버그에서 서신을 보낸 자매에게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방식과 문체로 대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현재 네 가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1. 신약시대와 사도적인 의미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지칭했다. 그것의 본래적이고 성경적인 의미를 엄격히 고려할 때, 내가 좋아하고 자주 반복한 정의는 이렇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믿고, 그분이 그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2. 그러나 그 말의 전국적이고 매우 대중적인 의미는 다만 그리스도교의 신앙고백자(professor)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 국가들뿐 아니라, 이교도와 무슬림 국가들도 있고, 그리스도교 교파들뿐 아니라, 정당(政黨)들과 철학의 학파들이 있다.

3. 그러나 새롭고 특별한 혹은 적절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거나 자신의 신앙을 고백

하는 방법들과 수단들에 대한 논쟁들이 일어나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한 다음, 신앙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물속에 장사되며, 그 후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을 지속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4. 그러나 루넨버그에서 서신을 보낸 우리의 자매가 불쾌하게 여겨 처음 인용한 문구에서 내가 그 용어를 사용했던 그 의미는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의 판단처럼, 어떤 사람들은 신앙고백을 옳게 하면서 옳지 않게 사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고백을 옳지 않게 하면서 옳게 산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스타일을 채택해왔다. “나는 그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침례를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아담 클라크(Adam Clarke)는 어떤 시인의 시구들을 인용한다.

너희 서로 다른 교파들이여, 너나없이 선포하는 자들이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다!”라고,
너희의 더 강력한 증거들은 신성하게 수여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사는지 나에게 보여 주오!

이제, 이 시구대로라면,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 속에는 내가 바라기는 주께서 용서하실 그들의 오류들과 실수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또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왕국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들이 의인들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기대한다.

유대인, 이스라엘, 할례, 제자와 같은 단어들은 성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²²⁾—“진실로 이스라엘인”—“참된 할례”—“이면적 또는 표면적 유대인”—“그러면 진실로 너희가 나의 제자이다,” 등.

나는 우리의 형제들이 올바른 스타일을 그토록 선망하고, 그토록 분별력 있고, 또 그토록 독립적인 것을 보니 기쁘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성경에 있는 이름들로 부르는 습관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그 용어를 가장 엄격한 성경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을 뿐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그 사례에서 나는 그 용어를 가장 근대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나는 마지막만큼 쉽게 처음에도 우리 자매의 질문들에 이 답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때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했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내가 이 안에서 더 유용하고 유익한 과정을 추구했던 것이 모두에게 여전히 보이게 될 것이다.

동부지역의 우리 형제들은 참으로, 내 생각에, 그들이 전체 사안을 들어보고 숙고할 시간을 정말로 거의 갖기도 전에, 성급하고 매우 경솔하게 그들 자신들을 표출했다. 나는 그들이 또 다른 계기에 그렇게 신속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매우 자주 거명된 훌륭한 자매가 제기한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완전함을 향해 배우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 만약에 그들 중에, 모두가 아닌, 누군가가 몇 가지 적절한 발언들이 수반된 그들의 서신 내용들이 이 정기간행물에 게재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나의 계획에 따라 그것들 중 일부를 출판할 의무가 있다.

나는 그들이 성급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그들을 진정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반시간 너무 늦는 것 보다 한 시간 너무 빠른 것이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받았

22) 역자주: 로마서 9장 6절.

던 몇 가지 결의안들은 전반적으로 오히려 미숙했다고 생각한다. 주께서 거룩한 모든 형제들에게 복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일에 통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캠벨(A. C.)